

T트렌드 네티즌, 자체 여론조사로 여론 이끈다

이제 댓글 대신 설문조사 학력 검증 이끌어내기도

아이디 'nothag'을 쓰는 네티즌은 최근 '학력위조, 나이, 성형 등 연예인의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에는 30일 현재 네티즌 2천777명이 참여, 1천 497명(72%)이 '거짓말인 만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580명(28%)이 '연예계 현실을 감안해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이해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양한 주제 설문 수습개 올려

포털사이트 '엠파스 랭킹'(www.ranking.empas.com) '사진 아래'코너에는 '실력이 중요한가 학력이 중요한가' '학력위조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일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일까' 등 학력위조와 관련된 네티즌의 생각을 묻는 설문만도 57개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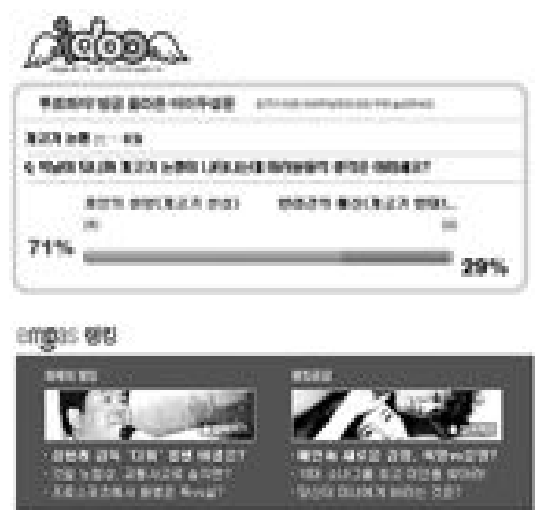
"새로운 방법의 여론 형성 장"

인터넷에서 '악플'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댓글'의 위세가 한풀 꺾이면서 네티즌들이 학력위조, 아프간 피랍 등 사회문제에 대한 주제를 스스로 만들어 설문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 넘쳐난다. 설문에 따른 여론형성 등의 영향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학력위조 및 자격증 검증, 아프간 피랍자들에게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결정되기도 했다.

유경아(여·27·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 사람의 반응과 인식의 변화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을 상반기 '댓글' 등으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전수는 1만2천 건으로, 올해 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0.06%만이 댓글을 쓰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댓글의 25%를 쓰고 있다.

전남대 사회학과 박해광 교수는 "네티즌 여론조사는 누구나 주제를 제시하고 의견을 말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새로운 방법의 여론형성의 장"이라면서도 "응답자들이 표본으로 뽑힌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보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터널속 재난 대응훈련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김덕용)는 30일 오전 장성~담양 간 고속도로 장성 3터널에서 담양소방서와 고속도로 순찰대 5지구대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터널 내 교통사고 및 재난 대응훈련을 가졌다.

레미콘 업체 유사경유 제조 사용

나주지역 3곳 적발...유류 책임자 3명 입건

나주경찰은 30일 유사경유를 자체 제작해 사용한 나주지역 레미콘 업체 A·D·N사를 적발하고, 각 업체 유류 관리 책임자 김모(32)씨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제품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최근 자신의 회사 기름 탱크에 경유와 광주 지역 S 난방유 업체로부터 사들인 산업용 난방유 '하이신'을 섞어 레미콘 차량에 주입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자동차용 경유 3천ℓ에 '하이신' 1만2천ℓ를 섞어 자사 레미콘 14대에 주입했고, D사는 경유 500ℓ와 '하이신' 4천ℓ를 혼합해 17대의 레미콘 운행에 사용했다. 또 N사는 윤활성 등유 1천ℓ에 경유 400ℓ를 혼합해 레미콘 5대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나주시청·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와 함께 나주시에 있는 27개 레미콘 회사를 조사, 이들 3개 업체를 적발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유사경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 출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엔진 계통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소값 하락 비판 50대 음독 자살

소값 하락에 낙심한 50대 농부가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0일 새벽 4시께 담양군 대덕면 운산리 인근 야산에서 전모(여·59)씨가 극약을 마신 뒤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것을 남편(63)이 발견, 병원에로 옮겼으나 숨졌다.

음주 40대 차 몰고 교회로 돌진 "이혼에 불리한 진술"...보성서 신도 10여명 부상

이혼소송 중 불리한 진술을 한 교회 신도들에게 앙심을 품은 40대 남성이 차를 몰고 교회로 돌진해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29일 오후 7시59분께 보성군 득량면 마천리에서 장모(48)씨가 자신의 크레도스 승용차를 몰고 M교회로 돌진해 저녁 예배를 보고 있던 박모(여·66)씨 등 10여 명이 다쳐 병원

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의 승용차는 계단을 타고 1층 교회 내부까지 진입, 출입구 근처에 앉아있던 신도들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록했다. 경찰에서 장씨는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이 다니는 교회 신자들이 내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대안학교 교사·학생 4명 사망 실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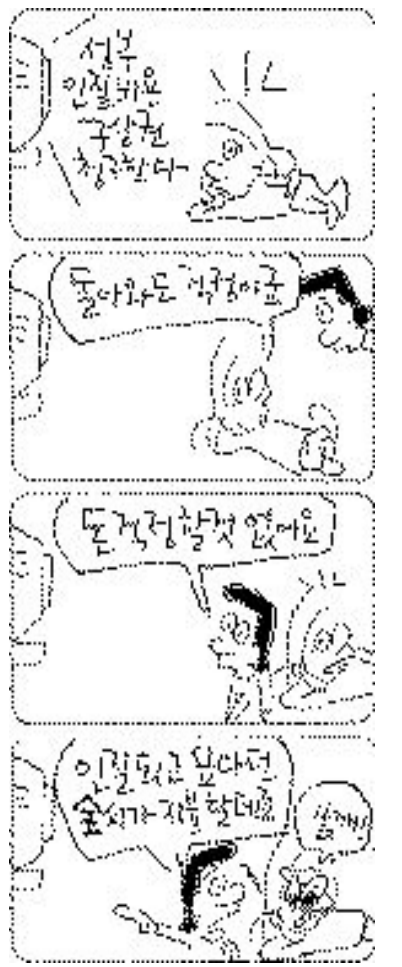
부산서...무인도 탐사하다

부산의 한 대안학교 교사와 학생 3명 등 4명이 무인도에 탐사를 갔다 숨지거나 실종됐다. 30일 오후 4시30분께 부산 강서구 진우도 해변에 부산 급정구 남산동 소재 대안학교인 U학교 교사 정철환(33)씨와 학생 김정훈(14)군이 숨져 있는 것을 이들을 태우러 간 선박의 선장 박모(50)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

고했다. 함께 섬으로 들어간 나머지 학생 2명은 실종돼 부산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3명으로 구성된 탐사팀은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박씨의 배를 타고 낙동강 하구에 있는 무인도인 진우도로 생태탐사활동을 하러 들어갔다. 해경은 시신에 특별한 외상이 없고

텐트와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점, 옷을 입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수영을 하다 29일째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탐사팀이 속한 학교는 2001년 4월 문을 연 대안학교로 현재 중등3년 고등2년 과정에 전교생이 42명이다. 이번 탐사는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직접 계획을 세웠으며, 교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게 동행 목적이었다.

나원침 (7296) 김종두



전남도의원 포커 도박 덜미

○현직 전남도 의원이 중·고 동창 생들과 포커 도박을 벌이다가 검찰에 적발돼 물의.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30일 중·고 동창들과 함께 포커 도박을 한 전남도의회 김모(50) 의원을 도박혐의로 불집야 조사 중.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달 27일 오후 5시께 해남군 해남읍 모동초회 사무실에서 동창 등 4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기다리던 중 판돈 20여만 원을 걸고 포커 도박을 했는데, ○검찰은 판돈이 적고 '심심풀이'로 도박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할지, 공인으로서의 품위 손상을 중시해 약식기소할지를 검토 중. ○해남에서는 지난 24일에도 경찰간부와 수혈 조합장 등 3명이 고스톱 도박을 벌이다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창업)까지!! 공인중개사과정 [개강:9월3일] ... 현대직업전문학교

7·9급 공무원 =전직종 완전대비= 9월1일주야반모집 (예약접수중) ... www.mdgso.co.kr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o.co.kr 79급공무원 이론반 첫선도 ... 한빛공무원학원

S the 1 요리학원 大특강 개강 ★제2기 카빙(carving) 과일조각장식·스시(초밥)수강생모집★ 맛과 멋이 살아숨쉬는 행복한 요리교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S the 1 요리학원